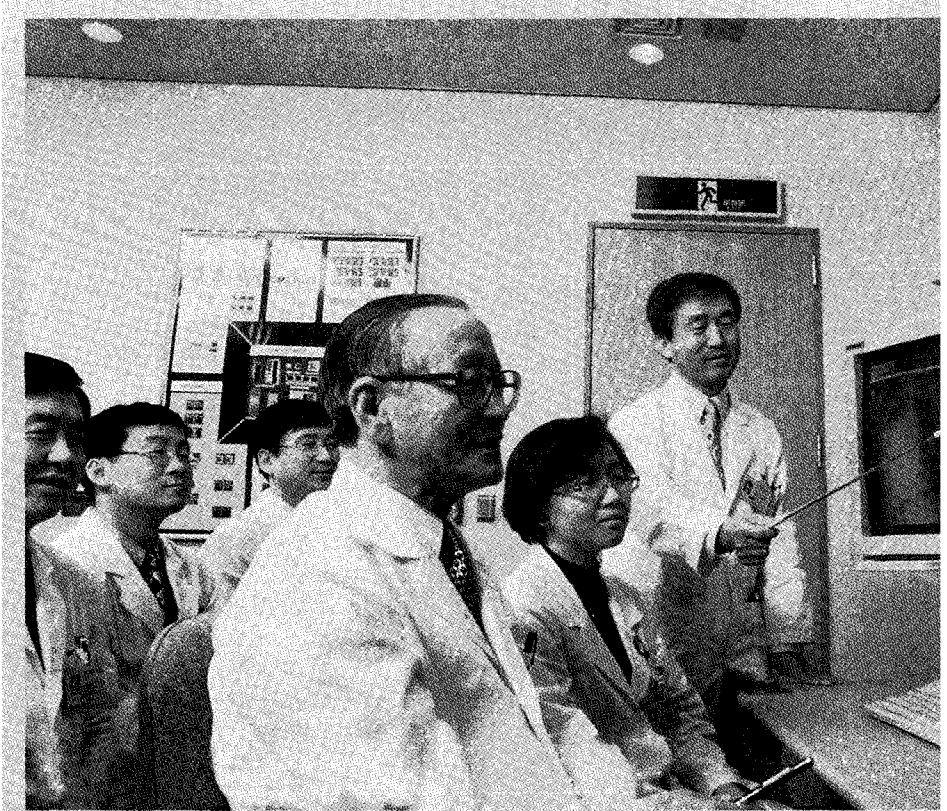


결핵의 실체



한용철 ■ 삼성의료원 명예원장
약력 / 서울대 의대교수 역임
서울대병원 원장 역임
삼성의료원 초대원장 역임
현 대한결핵협회장
현 한국심장재단 이사장

사진 가운데 흰한 미소의 한용철 박사가 보인다.

50여 년이 넘게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에게 정감어린 진료를 해온 한용철 박사는 우리나라 결핵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이번 호부터 한 박사를 이곳에 모셔서 결핵의 원인 및 증상, 발견과 예방, 치료에 대해 자상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 결핵과 결핵균

결핵이라는 병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온 병이다.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의 등뼈에서 결핵이 발견되었고 옛날 인도나 희랍의 의서에서도 병증의 왕이라고 불리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이 병이 있었다고 한다. 오랜 병이고 몸 안 여러 곳에 퍼지는 병이기에 시체에서 변화를 보아 결절(結節), 즉 덩어리 모양의 변화가 많아서 결핵(結核)이라고 하였다.

병이 진행되면 결절의 중심부가 치즈와 같은 모양이 되고 이것이 뭉어져서 결절 밖으로 나오면 속이 비어서 공동(空洞)이 생긴다. 곁에 생긴 부스럼이 끓어서 터지는 것과 비슷하나 이것이 허파(폐)속에서 일어나면 폐의 다른 곳까지 병집이 생긴다.

이런 결절이나 공동 속에는 많은 결핵균(結核菌)이 있다. 처음 1882년에 코흐(Koch)에 의해 발견된 이 균은 한번 붉게 물을 들이면 산(酸)으로 씻어도 붉은 빛이 안 빠진다고 해서 항산균(抗酸菌)이라고 불리며 길이가 2~3 μ (1 μ 은 1mm의 1,000분의 1)이고 넓이가 0.3~4 μ 인 간균(桿菌)이며 길이가 늘어나서 반으로 갈라지면서 두 개가 되는데 한번 갈라지는데 18~24시간이 걸린다(대장균은 15~20분임). 성장시간이 오래 걸리듯 생존력도 강해서 그늘진 곳에서는 몇 달이나 몇 해까지도 살 수 있다. 같은 결핵균이라도 사람과 소와 새에서 각각 더 병을 잘 일으키는 종류가 있으나 사람에게는 거의 인형(人型) 결핵균만이 병을 일으킨다.

2. 결핵이 옮는 길

결핵균은 숨통을 통해서 공기와 함께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 들어와서 허파(肺)의 가장 적은 바람집인 폐포(肺胞) 속에 주저앉게 되면 그 속에서 균이 자라고 임파액을 따라 폐문 임파선으로 가서 이곳도 붓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2~3주일이면 이런 변화는 모두 가라앉게 된다. 사람과 균의 공존상태(共存狀態)가 시작되는 것이다.

몸 안에 들어오는 결핵균은 공기 중에 떠있는 작은 먼지 속에 있는 것인데 이 먼지의 크기가 지름이 5 μ 이상이면 코털이나 숨길인 기관지(氣管支)벽에 가라앉아 가래에 쌓이고 벽 위의 작은 털이 쓸어내어 쫓겨나므로 그 이하의 작은 먼지 모양이라야 하는데 이런 작은 먼지는 폐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 공기 중에 많이 생기는 작은 침이나 가래방울이 공기 중에서 물기를 잃어서 생기는 것이지 땅에 한번 떨어진 큰 가래가 말라서 다시 떠돌아 다닌 것은 아니다. 환자가 기침할 때 코와 입을 가리려는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 몸 안에 결핵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으로 투베르쿨린 검사가 있다. 이것은 결핵균을 키운 데에서 뽑아낸 성분을 얇게 희석(稀

釋)해서 만든 주사액을 피부에 얇게 주사해서 48~72시간 후에 그 자리에 탄탄한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보는 반응인데 덩어리가 생기면 양성으로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라 본다.

3. 결핵의 감염과 발병은 다르다

결핵은 장티푸스 등의 다른 전염병과는 달라서 균이 몸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균이 몸 안에 들어와 있어도 건강상태가 좋으면 아무 곳으로도 퍼지지 못하므로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균은 죽은 것이 아니고 마치 간첩이 들어와서 기회를 노리고 있듯이 전신의 약화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폐렴, 백일해 등의 호흡기계의 병이나 급속한 성장을 하느라고 전신의 저항이 약화되는 사춘기 이후, 출산 후, 노화현상으로 일어나는 당뇨병 등 균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졌을 때에 균의 수가 늘어나고 퍼져서 비로소 병을 일으키게 된다.

발병은 이상의 자연적 조건 이외에도 관절염이나 신경통의 약으로 많이 쓰이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

폐결핵의 진단은 주로 흉부엑스선 검사와 객담내의 결핵균 검사로 판정한다

기간 쓰면 발병하기 쉽다.

4. 폐결핵의 증상

결핵은 전신병이다. 폐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지만 뇌막, 눈, 귀, 피부, 후두(喉頭), 복막(腹膜), 장, 신장, 방광, 남자의 고환과 여자의 나팔관, 뼈와 관절 등 퍼지지 않는 곳이 없으며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질 때에는 속립결핵(粟粒結核)이라고 하여 간이나 비장 등에도 퍼진다.

그러나 폐결핵 때의 증세는 별로 본인도 모르고 정기적인 흉부엑스선 검진으로 발견되는 것이 많으며 이런 경우가 치료 후에 활기가 나고 입맛이 돋고 체중이 느는 것으로 보아 나른하고 기운없던 것이 증세였구나 할 정도이다. 기침을 자주 하게 되거나 입맛이 없고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흔한 증세이며 고단하므로 일하기가 힘들게 되어 짜증을 내게 되면 주위 사람에게 노이로제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가래가 나오게 되면 빛깔이 처음에는 맑은 것이지만 푸른 빛이 돌기도 하며 때로는 피가 섞이기도 한다.

객혈(咯血), 즉 피가 가래모양으로 기침과 함께 올라오는 것은 가장 환

자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증세이다. 한두 번 소량을 뱉기도 하고 다량을 쏟다가 숨길이 막혀서 죽기까지도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2~3일의 안정으로 자연히 멎게 되며 병의 정도와도 큰 관계가 없어서 가벼운 경우인 데도 객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전혀 피를 보는 일이 없이 심하게 진행된 예도 있다.

이러한 폐결핵의 진단은 주로 흉부엑스선 검사와 객담 내의 결핵균 검사로 판정하며 엑스선검사에서는 병집의 모양과 넓이, 공동의 유무 등을 보며 객담검사로 그 병집이 결핵균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뇌막염의 경우에는 두통, 혼수상태 등이 급격히 고열과 함께 나타나며, 복막염일 때에는 배가 아프면서 배가 부르게 되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면서 마르게 되고 신장이나 방광 등 오줌길에 결핵이 있을 때에는 피가 뇨와 함께 섞여 나가게 되고 오줌을 자주 보게 되는 등의 증상이 있다.

후두 결핵일 때에는 목소리가 변하여 쉼소리가 된다. 고환이나 나팔관의 결핵은 불임증(不妊症)의 원인이 된다. ♣ <다음호 계속>